



전승지

왕버들

귀가 달린 황구령이가 사는 왕버들

		
지정번호	성주-11-18-4	경북 성주군 월항면
지정년도	2011	대산리 125
관리기관	성주	35° 55' 39.42" N
수령	410년	128° 19' 32.39" E
수고	16m, 17m	
흉고둘레	5.9m, 3.9m	

두 그루가 숲을 이루는 보호수(성주-11-18-4) 왕버들은 한개마을 민속촌의 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다. 한개마을은 입항조 이우로부터 시작되어 600여 년 가까이 내려온 성산 이씨 집성촌이며, 국가지정(중요문화재 제255호) 민속마을이다. 왕버들 바로 앞에는 한개라는 글자가 새겨진 커다란 표지석과 그 바로 앞에 보호수 지정 표지석이 있다. 왕버들은 두 그루 중 한 그루의 원줄기는 바로 서 있으나 밑동에서 갈라진 큰 가지가 땅바닥으로 길게 누웠다가 위로 솟구치는 모양이다. 다른 한 그루는 약간 비스듬히 위를 향하고 있다. 왕버들의 나이는 410년으로 추정된다. 두 그루 중 한 개의 나무높이는 16m, 가슴높이둘레(2줄기)는 590cm, 330cm, 밑동둘레(1줄기)는 900cm 정도이다. 다른 한 개의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390cm, 밑동둘레는 4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두 그루를 합쳐 30m 정도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뱀과 관련하고 있다. 두그루의 왕버들에는

귀가 달린 황구령이가 살고있다. 황구령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어느 때나 마을의 중요 행사 때에 종종 나타난다. 자주 출현하는 때는 동제 기간인 동짓날부터 이듬해 정월 대보름날 사이이다. 황구령이는 이 기간에 외지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면 왕버들에서 내려와 한개마을로 들어가려는 길을 막았다. 왕버들은 정월 대보름날에 금줄을 메고 동제를 지낸다. 이곳의 왕버들은 성주에서 유명한 성박숲(성주읍 경산리 성주읍성 밖에 조성된 나무나이 300~500년의 59그루 왕버들 숲)의 유명세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한 가지가 드러누운 특이한 형상의 노거수로 자라고 있어 보호가치가 있다. 한편 이 왕버들이 있는 대산리는 큰 산(영취산)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며, 대산리의 한 개(마을)는 마을 앞에 큰 내(하천)가 있는 큰 개울, 큰 나루라는 뜻이다.